

휴스턴, 창단 첫 WS 우승까지 1승 남겨

5차전 다저스에 연장 10회말 브레그먼 끝내기 안타로 승리... 에이스 커쇼 6실점·마무리 젠슨도 붕괴

흘린 5개를 폭발시킨 휴스턴 애스트로스 가 1A 다저스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연장 10회말 드라마틱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한 발 앞서나간 휴스턴은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뒀다.

휴스턴은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벌어진 다저스와 2017 월드시리즈(7전4승제) 5차전에서 13-12로 승리했다.

흘린 5개를 폭발시킨 휴스턴은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불펜진을 초토화했고, 철벽 마무리 캔리 젠슨까지 무너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다.

4차전까지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선 양 팀은 5차전 승부를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타격전을 벌였다.

1차전 승부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휴스턴 선발 밸러스 카이클과 커쇼가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맞대결을 펼쳤지만 두 선수 모두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다저스가 초반 카이클을 공략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휴스턴도 커쇼를 상대로 5회까지 6점을 뺐어냈다.

달아나면 따라 붙는 난타전 끝에 6회까지 7-7 팽팽한 균형이 이어졌다.

7회초 코리 벨런저의 적시타로 다저스가 먼저 균형을 깨뜨렸지만 7회말 휴스턴이 조지 스프랑어의 솔로포로 동점을 이뤘다.

휴스턴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호세 알투베의 적시 2루타로 역전에 성공했고, 카를로스 코레아의 투런포까지 터지면서 11-8로 재역전했다.

다저스가 8회 코리 시거의 2루타로 1점을 추격하자 휴스턴은 이어진 공격에서 9번 타자 브라이언 맥켄의 홈런포까지 터지면서 12-9로 승리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경기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패색이 짙었던 다저스가 9회초 1사 1루에서 아시엘 푸이그의 투런 홈런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다.

이어 오스틴 반스의 2루타로 동점 기회를 만들었고, 아웃가운트 한 개를 남겨 놓고 크리스 테일러의 극적인 적시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무리 캔리 젠슨으로 하여금 9회말 휴스턴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을 막아낸 다저스는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저스는 끝내 웃지 못했다.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는 가 싶었던 휴스턴이 젠슨을 무너뜨렸다.

10회말 젠슨이 아웃가운트 2개를 먼저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5차전 승부에서 연장 10회말 끝내기 승리를 거둔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수들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잡고도 주자 2명을 몸에 맞는 공과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다.

합격계 기회를 잡은 휴스턴은 알렉스 브레그먼이 젠슨을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며 가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나간 휴스턴은 1승만 더 하면 1962년 팀 창단 후 55

년 만에 첫 월드시리즈 패권을 쥐게 된다.

두 팀의 월드시리즈 6차전 승부는 1일 오전 9시20분 다저스의 홈 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치러진다.

6차전 선발로 다저스는 리치 힐, 휴스턴은 저스틴 벨랜더가 각각 출격한다

/뉴시스

방탄소년단 '피땀눈물' 뮤비, 2억뷰 돌파

대세 그룹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다.

30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윙스(WINGS)'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가 전날 오후 5시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었다.

지난해 10월 발매한 '피 땀 눈물'은 록바톤 트랩(Moombahton Trap) 장르의 곡이다. 유혹을 만난 소년들의 갈등과 성장을 이야기한 노래이다.

빅히트는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의 퍼포먼스와 세련되고 감각적인 영상미가 특징으로 6분이라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인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절어 불타오르네'(FIRE) 피 땀 눈물 등 총 3편의 2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상남자' '세이브미' '낯 투데이' '날날 DNA' 등 총 8편의 1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4일 마카오에서 방탄소년단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3 윙스 투어(2017 BTS LIVE TRILOGY EPISODE III THE WINGS TOUR)를 연다



/뉴시스

'토르:라그나로크' 개봉 닷새 만에 220만명 돌파

마블 스튜디오의 새 영화 '토르:라그나로크'가 개봉 첫 주말 16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으며 220만 관객을 넘어섰다.

3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토르:라그나로크'는 27~29일 1639개관에서 2만5354회 상영, 157만9088명을 끌어모아 개봉 닷새 만에 누적 관객수 220만명을 돌파했다(221만5146명).

이 기간 매출액은 133억원(누적 매출액 177억원), 매출액 점유율은 63.8%였다.

'토르:라그나로크'는 30일 오전 8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2만5874명(예매 점유율 35.7%)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작품은 '토르:천둥의 신'(2011)(169만명) '토르:다크 월드'(2013)(303만명)로 이어지는 '토르'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죽음의 여신 헬라가 토르의 고향 아스가르드를 침략하고, 위기에 빠진 토르가 우여곡절 끝에 동료들을 모아 헬라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크리스 햄스워스가 전작에 이어 주인공 '토르'를 맡았고, '헐크' 마크 러팔로와 '로키' 톰 히들스턴이 합세했다.

최악의 악당 헤라는 할리우드 최고 연기파 배우 중 한 명인 케이트 블란체이 맡았고, 이드리스 엘바·앤서니 홉킨스·테사 톰슨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연출은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맡았다. 영화는 북미 현지에서 다음 달 3일 개봉할 예정이다.

'범죄도시'(감독 강용성)는 개봉 4주차 주말 동안 47만6051명을 추가, 6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584만5075명).

이밖에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 일본 멜로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13만5239명, 누적 19만8970명), 4위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 '지오스톱'(11만2334명, 97만968명), 5위 내장 김창수(2만7527명, 35만8233명) 순이었다.



/뉴시스

신태용호, 이정협·이명주 첫 발탁... 이동국은 제외

다음달 10일 콜롬비아·14일 세르비아와 두 차례 평가전

신태용호가 무던 공격리인에 변화를 줬다.

다음달 국내 평가전에서 이정협(부산아이파크), 이근호(강원FC)를 시험한다. 이정협은 신 감독 체제에서 첫 발탁이다.

신태용 감독은 30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0일 콜롬비아(수원), 11월14일 세르비아(울산)와의 A매치 평가전에 나설 23명을 발표했다.

신태용 체제에서 이정협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황태자로 불린 이정협은 올해 3월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 예선 시리아, 중국과의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최종예선 마지막 9·10차전을 앞둔 신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산아이파크 소속인 이정협은 시즌 9골로 득점부문 6위다. 파트카는 이근호다.

골 결정력과 공격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 감독이 새로운 시험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 이명주(FC서울)도 신 감독 체제에서 처음 합류했다.

축구대표팀은 이달 유럽 원정에서 러시아에 2-4, 모로코에 1-3으로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당시 K리그를 배려해 순수 해외파로만 선수단을 꾸려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 감독의 예고처럼 국내파와 해외파를 고루 선발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기성용(스완지시티)을 비롯해 손흥민(토트넘), 구자철(아우크스부르), 권창훈(디종)이 선발됐다. 이정용(크리스탈 팰리스)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K리그 클래식에서 통산 200골을 달성한 이동국(전북현대)도 선발되지 않았다.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컵에 유럽파들이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의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손발을 맞출 기회는 올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 팀들이 대표팀 차출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11월 A매치 축구대표팀 명단(23명)

▲골키퍼 =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빛셀 고베), 조현우(대구FC)

▲수비수 = 김영권(광저우 헝다), 장현수(FC도쿄), 권경원(벵진), 정승현(사간도스), 김진수(전북현대), 고요한(FC서울), 김민우(수원삼성), 최철순(전북현대)

▲미드필더 =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충청 리판), 이창민(제주유나이티드), 주세종(FC서울), 권창훈(디종), 이재성(전북현대), 손흥민(토트넘), 염기훈(수원삼성),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명주(FC서울)

▲공격수 = 이정협(부산아이파크), 이근호(강원FC)

▲대기명단(5명) = 김동진(상남FC), 김민혁(사간도스), 남태희(알두하일), 황일수(엔벤), 윤일록(FC서울)



신태용 감독은 30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0일 콜롬비아(수원), 11월14일 세르비아(울산)와의 A매치 평가전에 나설 23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